

#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The Study of the Base Book and Engravings of the Woodcuts of  
Eojebijangge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柳 富 鉉 (Yoo, Boo-Hyun)\*\*

##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br>底本과 板刻에 대한 새로운 이해 |
| 2. 「御製秘藏詮」이란                     |                                       |
| 3.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에<br>대한 先行研究 및 評價 | 5. 結 言<br><참고문헌>                      |

## < 초 목 >

初雕藏「御製秘藏詮」판화에 대한 종래의 학설은 북송의 開寶藏「御製秘藏詮」판화를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雕造된 것이었다. 따라서 개보장 御製秘藏詮 판화와 비교해보면 고려회화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려 초기의 산수화풍을 짐작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되어 왔다.

本稿는 이러한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의 그 저본과 판각에 대해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새롭게 고찰한 것이다. 즉 초조장「御製秘藏詮」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와 개보장「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4장의 판화와의 전체적이면서 정밀한 대조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는 개보장 御製秘藏詮 의 판화가 그대로 登梓本으로 사용되어 覆刻된 것으로 구명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에 대한 종래의 연구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要語: 초조장, 개보장, 어제비장전, 판화

\* 이 論文은 2010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研究費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0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6일

<ABSTRACT>

The existing theory for *Eojebijanggeon* which is i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is that it was based on *Eojebijanggeon*, the Tripitaka Kaibao in Buk-Song(北宋), but completed by adding the originality and improving its weak points. Compared with the woodcut of *Eojebijanggeon*, the Tripitaka Kaibao, it has been recognized as an invaluable material which helps assume the style of landscape painting in the early Goryeo Period.

The study presents a new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viewpoints, on the base book and publication for the woodcut of *Eojebijangge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This study compares in detail and overall the woodcuts of *Eojebijangge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with the four woodcuts in the thirteen volume of *Eojebijanggeon*, the Tripitaka Kaibao.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woodcuts of *Eojebijangge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were engraved, using the woodcuts of *Eojebijanggeon*, the Tripitaka Kaibao, as their bas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could confirm the need for reexamining the existing theories and research findings on the woodcuts of *Eojebijangge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Key words: the First Tripitaka Koreana, Tripitaka Kaibao, *Eojebijanggeon*, woodcut

## 1. 緒 言

高麗의 初雕藏「御製秘藏詮」20卷(이하「御製秘藏詮」으로 略稱함)은 일본 南禪寺에 19권(제1권~제16권, 제18권~제20권), 한국 誠庵古書博物館에 1권(제6권)이 수장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에는 北宋의 開寶藏「御製秘藏詮」1권(제13권)이 수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御製秘藏詮」에는 권마다 보통 5장의 版畫가 본문[偈頌]의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이「御製秘藏詮」판화는 그간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고려 초조장의 板刻과 고려 산수화의 발달단계, 표현기법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종래 학계에서는 고려 초조장의 판화는 “북송본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雕造한 것”<sup>1)</sup>, “북송 開寶勅版에 실린 山水畫의 어느 點을 닮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板刻된 11세기 후반기의 고려시대 산수화의 모습이 더욱 충실히 반영된 것”<sup>2)</sup>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御製秘藏詮의 북송판과 고려판의 비교는 … 종래의 학자들이 우리의 初雕大藏經의 版刻術이 北宋本の 覆刻이라고 여겼던 사실에 대해 국내의 傳本에 의하여 版下本을 마련하고 판각해 내었다는 立證이 되겠다.”<sup>3)</sup>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이해와 인식은 주로 고려의 초조장과 북송의 開寶藏「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를 기반으로 단편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전래되고 있는 御製秘藏詮의 모든 판화를 상호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초조장·개보장「御製秘藏詮」판화의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전체적이고 정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필자는「御製秘藏詮」판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초조장

1) 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 『季刊美術』 제3호(1977), 136.

2) 李成美, “高麗初雕大藏經의 <御製秘藏詮>版畫 - 高麗初期 山水畫의 一研究,” 『考古美術』 169·170호(1986), 한국미술사학회, 14.

3) 張忠植, “韓國 佛教版畫의 研究(1),” 『불교학보』 19(1982), 불교문화연구원, 295.

「御製秘藏詮」 판화의 저본과 판각에 대해서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御製秘藏詮」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다음으로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와 개보장 「御製秘藏詮」 판화와의 전체적이면서 보다 정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의 저본과 판각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향후 초조장의 저본과 판각 그리고 고려 산수화에 대한 이론 정립에 있어서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up>4)</sup>

## 2. 「御製秘藏詮」이란

「御製秘藏詮」은 중국 북송 태종(976-997)이 불교의 깊은 뜻을 읊은 偈頌集이다. 여기에는 卷마다 50首의 偈頌(계송 1수는 5言 4句로 이루어짐)이 실려 20권에 걸쳐 총 1,000首의 계송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른바 「御製秘藏詮」 版畵는 보통 「御製秘藏詮」 卷마다 계송 10首를 단위로 해서 그 앞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 판화에는 산수와 어우러진 菩提道場의 정경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중국 五代末 北宋初 山水畵風에 속하는 것이다.

이 「御製秘藏詮」은 대장경에 入藏되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즉 北宋의 開寶藏에 처음 수록된 이후 高麗의 初雕藏과 再雕藏 그리고 金의 趙城藏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개보장과 초조장의 「御製秘藏詮」에는 「御製秘藏詮」 판화가 삽입되어 있지만, 再雕藏과 趙城藏에는 판화가 삽입되어 있지 않다.

현재 「御製秘藏詮」이 再雕藏에는 완전하게 그리고 趙城藏에는 일부 산절된 채 全卷이 전래되고 있다. 하지만 개보장 「御製秘藏詮」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4) 本 研究를 위해 筆者에게 資料 提供과 助言을 해준 中國 上海師範大學의 方廣鎬 教授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제13권 1권뿐이다. 그리고 초조장「御製秘藏詮」으로는 일본 남선사에 제1권부터 제16권 그리고 18권부터 21권까지의 20권이 수장되어 있고, 한국에는 誠庵古書博物館에 제6권 1권만이 수장되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조장과 조성장에 수록되어 있는「御製秘藏詮」의 편제는 30卷<sup>5)</s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제비장전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30권의 所從來에 대해서『祥符錄』<sup>6)</sup> 第18卷<sup>7)</sup>의 기록에 의거하여

5) 御製秘藏詮 30卷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卷 제1~卷 제20: 御製秘藏詮 20卷

卷 제21: 御製佛賦 2首・御製詮源歌 1首 1卷

卷 제22~卷 제25: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卷 제26~卷 제29: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卷 제30: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

6) 祥符錄은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淨 등이 大中祥符 6년(1013)에 편찬한 목록인데, 現存本은 卷1, 2, 5, 9, 19, 21, 22 등이 缺失되었고, 卷6, 10 두 卷은 殘缺된 상태이다. 본 목록에는 太平興國 7년(982)부터 大中祥符 4년(1011)까지 新譯된 경전 및 宋太宗의 御製 등 222部 413卷이 기재되어 있다.

7) 大中祥符法寶錄卷第十八

… 我太宗皇帝 … 著心輪廻秘藏詮逍遙詠等歌詩凡五十七卷 既置於寶藏亦秘在名山 …

蓮華心輪廻文偈頌 一十一卷

秘藏詮 二十卷

秘藏詮佛賦・歌行 共一卷

秘藏詮幽隱律詩 四卷

秘藏詮懷感詩 四卷

秘藏詮懷感廻文詩 一卷

逍遙詠 一十一卷

緣識 五卷

蓮華心輪廻文偈頌 一十一卷

右此頌文 … 太平興國八年(983)成 是年三月 上遣 … 等二十人爲之注解 … 詔以其文編聯入藏

秘藏詮 二十卷

秘藏詮佛賦・歌行 共一卷

右詮賦等端拱元年(988)十二月 上遣 … 等五十六人同爲之注解 … 詔以其文編聯入藏

秘藏詮幽隱律詩 四卷

秘藏詮懷感詩 四卷

秘藏詮懷感廻文詩 一卷

逍遙詠 一十一卷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제비장전」 30권 가운데 『御製秘藏詮』20卷과 『御製秘藏詮佛賦』[御製佛賦]・『歌行』[御製詮源歌] 1卷은 端拱 원년(988) 12월에 56人이 註解를 한 다음 北宋의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것이고, 『御製秘藏詮幽隱律詩』4卷・『御製秘藏詮懷感詩』4卷・『御製秘藏詮懷感廻文詩』1卷 등은 端拱 2년(989) 11월에 12人이 註釋을 한 다음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것이다.<sup>8)9)</sup>

### 3.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에 대한 先行研究 및 評價

여기에서는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 및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저서나 논문 그리고 백과사전 등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췌 인용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千惠鳳, 季刊美術 제3호, 1977. 136)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秘藏詮 권제 6에 수록된 판화의 구도와 기법이 북송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는 전해지고 있는 북송판이 없어 비교해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 있는 같은 책 권제 13의 북송본과 초장본을 대비해 보면 그 모두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 예로서 동일한 위치에 삽입된 판화 하나를 들어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

右詩什端拱二年(989)十一月 上遣 … 等一十二人同爲之注釋 … 詔以其文編聯入藏緣識 五卷

右頌至道元年(995)三月中 詔下印經院 開板模印 編聯入藏

- 8) 한편, 『佛祖統紀』卷43에는 『御製秘藏詮』이 太平興國 8년(983)에 近臣에게 宣示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至道 2년(996)에 『御製秘藏詮』20권에 註釋을 붙여 入藏・頒行했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太平興國八年 詔以御製蓮華心輪廻文偈 秘藏詮 逍遙詠宣示近臣 … 至道二年 詔以御製秘藏詮二十卷 緣識五卷 逍遙詠十卷 命兩街箋注入大藏頒行”).
- 9) 御製秘藏詮 의 편제와 구성 및 전래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稿를 달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북송본의 판화는 도량일대의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섬세하게 精刻한 가운데서 靜인 柔麗感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그 기법은 섬세 유려한 巧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행수도의 장소로서는 그윽한 맛이 나지 않아 별로 어울리지 않는 구도로 여겨진다.

한편 초장본은 절벽의 기암이 중첩된 深山幽谷의 도량일대를 웅장하게 묘사해 주고 있으나 그 기법은 線이 굵고 素拙한 편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동적인 약동감과 대담성을 느끼게 하며, 고행수도의 장소로서도 적합한 구도임을 보여주고 있어 자못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미술의 전통적 성격과 특징의 일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판화를 감상해 보면 그 구도와 판각의 기법이 서로 공통함을 곧 인지할 수 있다. 북송본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雕造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들 판화가 지니고 있는 의의와 성격이 자못 주목된다.

종래의 학자들은 우리의 初藏 版刻術이 북송본의 충실한 覆刻을 통해 그대로 받아 들여진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국내의 우리 傳本에 의해 版下本을 마련하고 판각해낸 독자적인 초장본들이 사뭇 정교함이 이미 고증되었듯이, 또 위 판화의 예에 의해서도 독자적 일면이 여실히 입증될 수 있듯이, 종래의 통념이 옳지 못함을 새삼 지적할 수 있다.

… 이러한 판화술의 독자적 우수성은 고려 전기의 우리 판화미술은 물론 인쇄문화 불교문화 및 문화사의 연구에 있어서 종래 소홀히 했던 새로운 독특성의 일면을 되찾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韓國繪畫史」(安輝濤, 一志社, 1980 1쇄, 1996 13쇄. 57-59)

“… 고려시대의 회화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나, … 현존하는 繪畫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御製秘藏詮의 판화이다. 이 판화는 비록 불교미술품이기는 하지만 고려 초기의 산수화 양식을 어렵게 보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고려시대 [초조대장경] 비장전 판화를 하바드대학의 포그 미술박물관 소장의 비장전 판화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구도나 공간 처리, 그리고 세부 묘사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고려 초기의 회화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바탕으로 벌써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韓國 佛教版畫의 研究(1)(張忠植, 불교학보 19, 불교문화연구원, 1982. 295)

“… 御製秘藏詮의 북송판과 고려판의 비교는 … 이미 제13권의 비교 고찰로

서 넉넉히 짐작되고 있다. … 고려본은 線이 굵고 素拙한 편이어서 동적인 약동감과 대담성을 느끼게 한다(千惠鳳, ‘季刊美術’ 136 참조)고 지적된다면 北宋本の 보다 平遠의 구도에 애써 細線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 차별상으로 이해된다. 이것 역시 종래의 학자들이 우리의 初雕大藏經의 版刻術이 北宋本の 覆刻이라고 여겼던 사실에 대해 국내의 傳本에 의하여 版下本을 마련하고 판각해 내었다는 立證이 되겠다. … 고려본 비장전의 판화와 北宋本 판화를 비교해 보면 그 구도나 공간 처리, 또는 세부 묘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역시 고려초기의 회화가 중국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벌써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4) 高麗初雕大藏經의 〈御製秘藏詮〉版畫 - 高麗初期 山水畫의 一研究(李成美, 考古美術 169·170호, 한국미술학회, 1986. 14-33)

“韓國繪畫史 연구의 가장 큰 難點으로 지적되는 것은 初期 회화 유적의 零細함이다. 특히 고려시대 산수화는 현존 회화작품이 극소수이며 그 것도 14세기 이전의 것은 全無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세기 후반기에 板刻된 것으로 보이는 高麗初雕大藏經 중 〈御製秘藏詮〉에 여러 폭의 山水畫가 삽입된 것이 발견된 것은 고려시대 산수화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北宋本の 판화와 南禪寺本の 판화는 삽입 위치도 다르고 같은 위치에 삽입된 판화도 그 構圖나 內容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고려 初雕大藏經이 북송의 開寶勅版을 그대로 覆刻했다는 종래의 막연한 추측은 잘못임이 판명되었다(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 季刊美術 제3호, 1977. 133-134). 따라서 高麗初藏經의 판화는 북송 開寶勅版에 실린 山水畫의 어느 點을 닮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板刻된 11세기 후반기의 고려시대 산수화의 모습을 더욱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紙筆墨에 의한 본격적인 산수화가 아니고 線描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木版畫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다수의 山水畫版畫를 통하여 우리는 당연히 고려 초기의 산수화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본다.

… 筆者는 高麗初雕大藏經의 〈秘藏詮〉 판화들이 북송 開寶勅版의 판화들에 기초를 두었으리라는 추측을 다시 한번 부정하고 이들 판화가 당시의 고려산수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유일한 北宋本인 Fogg미술관 소장 〈秘藏詮〉 판화와 고려초조대장경의 〈秘藏詮〉 판화와의 관계를 규명하여야 한다. … 결국 北宋本 판화는 高麗本 판화를 보고 간추려 그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추측하게 된다. … 따라서 확실히 10世紀末이라고 할 수 있는 開寶勅版의 〈秘藏詮〉 판화가 어디서 발견될 때까지는 Fogg미술관 소장 北宋本에 대한 高麗初雕大藏經 판화들의 優位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 南禪寺 소장의 고려초조대장경의 판화는 中國山水畫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달해온 고려초기 산수화 양식, 즉 시기적으로는 11세기초기-중기 양식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시대 산수화의 발달단계, 또는 그 표현기법의 다양성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귀중한 자료라는 점이다. 이들 판화는 현존하는 고려초기의 산수화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실로 막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 5) 한국 산수화의 관념과 표현형식(智順任, 造形藝術研究 제2호, 조형예술연구회, 1995. 15)

“... 고려시대 御製秘藏詮의 작품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수화가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11세기 전후한 고려의 산수화가 지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 6)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朴桃花, 博士學位論文, 1997. 19)

“御製秘藏詮판화는 山水를 배경으로 深山幽谷에서의 修行장면 등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人間과 自然의 詩的인 融合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배경이 되는 산수의 표현이 다양하고 발달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경판화 뿐만 아니라 畫蹟이 드문 高麗 繪畫 研究에도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巖山과 土山の 모습, 다양한 樹木의 표현, 泰細線의 적절한 구사 등 정교한 판각술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 판화의 높은 수준을 웅변해주고 있다.”

- 7) 한국 옛 목판화의 아름다움(李泰浩·宋日基, 韓國 古木版畫의 美 - 그림이 있는 고서(古書)를 중심으로, <Red Blossom -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展의 특별전: 한국의 古版畫 해설서, 일민미술관, 2005)

“... 불경의 변상판화(變相版畫)는 대부분 경전의 앞쪽에 한 장이 실려 있으나, 11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초조본 <御製秘藏詮 御製秘藏詮>이나 1363년에 복각(覆刻)된 《금강경 金剛經》 등은 본문 사이나 윗편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삽화본(插畫本)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판화는 중국 송·원대(宋元代) 대장경을 모본으로 삼았으면서도 뚜렷히 고려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북송 판을 바탕으로 제작한 고려의 <御製秘藏詮>의 경우, 단순히 중국본을 임모(臨摹)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중국 북송대 <御製秘藏詮> 판화에 새겨진 산수 표현이 험준하고 뾰족한 암산(巖山)으로 채워진 반면, 고려의 그것은 산 능선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다. 우리의 풍광을 닮은 듯한 인상은 고려 고유의 실경산수화로 착각하게 한다.”

-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책, “비장전변상도” 항목

“중국 북송의 태종이 지은 불교관계 저술에 첨부된 삽도형식의 목판 그림. 983년에 완성된 20권본과 996년에 이룩된 30권본의 두 종류가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91년(성종 10) 한언공(韓彦恭)에 의하여 20권본이 처음으로 전래되었고 11세기 전기와 후기에 30권본이 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모두 30권본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일본 경도 난젠사(南禪寺) 소장의 고려 초조본(初雕本) 御製秘藏詮 제1·6·7·13·21 권과 국내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제6권이 소장되어 있다. 난젠사 본과 성암본은 같은 고려 초조본이지만 같은 목판은 아니다. 이밖에 중국의 북송에서 만든 비장전 제13권 등이 미국 하버드대학 포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산수화풍의 제법 큰 변상도를 지니고 있어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회화 및 일반 산수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 고려본 변상도와 북송본 변상도를 비교한다면 그 구도와 공간처리 또는 세부묘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려시대의 대장경조조 및 변상화제작은 적어도 11세기경에는 독자적인 양식이 적용되었다고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11세기 전후의 고려 및 북송의 산수화양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그림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고려 초기의 고려 회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미 고려의 독자적 양식을 추구해가고 있음을 이 변상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張忠植>”

- 9) “御製秘藏詮판화”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http://premium.britannica.co.kr>)[2009. 7. 14자 기사] Copyright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All Rights Reserved)

“御製秘藏詮版畫: 중국 북송의 태종(976-997)이 지은 <御製秘藏詮>에 삽도형식으로 첨부된 변상도. <御製秘藏詮>은 불교교리의 깊은 뜻을 얹은 약 1,000수의 오언시(五言詩)로 된 일종의 불교시집으로 <비장전 秘藏詮>이라고도 한다. 이 <비장전>은 983년경에 완성된 20권본과 996년경에 이루어진 30권본이 있는데, 2종류 모두 고려시대에 유입되어 11세기 전반과 후반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20권본은 전하지 않고, 30권본의 일부가 성암고서박물관과 일본 난젠사에 소장되어 있다. <비장전판화>는 성암고서박물관의 권6과 난젠사의 권1·6·7·13·21의 삽도를 일컫는 것으로 전자에 4면, 후자에 23면이 전하고 있다. 그림의 내용은 산수와 어우러진 보리도량(菩提道場)의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구성 요소의 적절한 배치와 깊이 있는 구도 등에 의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산의 모습이나 세형침수(細形針樹), 산의 표면에 사용된 우점준(雨點皴)과 치형돌기(齒形突起) 등은 오대말 북송초 산수화풍에 속하는 것으로 고려 초기의 산수화풍을 짐작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북송의 <비장전판화>(1108, 미국 포그미술관)와 비교해보면 고려회화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평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는 북송본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雕造한 것”인데, “북송의 <비장전판화>와 비교해보면 고려회화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려 초기의 산수화풍을 짐작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4.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조장「御製秘藏詮」제13권의 북송본과 초장본을 대비해 보면 그 모두가 판이하게 다르다. … 초조장「御製秘藏詮」은 북송본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雕造한 것”이라는 종래의 연구결과는 주로 초조장·개보장「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의 제한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의 분명하고 완벽한 연구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조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된 판화와 일본 남선사에 수장되어 있는 御製秘藏詮 제1권부터 제10권까지 삽입되어 있는 판화에 대한 전체적인 대조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보면, 초조장·개보장「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각각 4 장의 판화는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초조장과 개보장의 판화는 판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조장과 개보장의 「御製秘藏詮」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가 동일하지 않은 각각 다른 두 종류의 판화라는 의미는 아니다. 원래 초조장·개보장의 「御製秘藏詮」판화는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개보장「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4 장의 판화가 초조장「御製秘藏詮」에는 개보장과 같이 제13권이 아닌 제5권, 제8권, 제9권, 제10권 등 다른 卷次에 삽입되어 있는 것<sup>10)</sup>이다.

10)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이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미 1994년 南禪寺秘

다시 말해서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는 개보장 「御製秘藏詮」 판화를 저본(즉 登梓本)으로 해서 복각되었던 것이다(이 사실은 뒤의 대조표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초조장 「御製秘藏詮」에서의 판화는 그 위치가 개보장 「御製秘藏詮」 판화와 동일한 권차, 동일한 자리가 아닌 다른 권차,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초조장 「御製秘藏詮」 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sup>11)</sup>는 초조장 「御製秘藏詮」 제3권의 판화와 동일한 판화이다. 즉 제3권의 판화가 제13권에도 중복해서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남선사에 수장되어 있는 초조장 「御製秘藏詮」 제11권부터 제20권까지(제17권은 缺卷임)의 판화도 제1권부터 제10권까지의 판화를 중복해서 삽입한 것이다.<sup>12)</sup>

이제, 먼저 개보장 「御製秘藏詮」 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sup>13)</sup>로서 초조장의 다른 권차,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表 1> “개보장 「御製秘藏詮」 제13권의 판화와 동일한 초조장 「御製秘藏詮」의 판화와의 대응표” 및 <表 2> “초조장 「御製秘藏詮」 제13권의 판화와 동일한 초조장 「御製秘藏詮」 제3권의 판화와의 대응표”와 같다.

아울러 남선사에 수장되어 있는 初雕藏 「御製秘藏詮」 版畫의 重複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의 <表 3> “남선사에 收藏되어 있는 초조장 御製秘藏詮 版畫의 重複 狀況表”와 같다.<sup>14)</sup>

---

藏詮の木版畫」(江上綏・小林宏光, (東京: 山川出版社, 1994), 12)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11) 초조장 「御製秘藏詮」 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는 “高麗初雕大藏經의 <御製秘藏詮> 版畫 - 高麗初期 山水畫의 一研究”(李成美, 考古美術 169・170호(1986), 한국미술학회, 55-67)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2) 천혜봉, 「韓國書誌學研究」(서울: 삼성출판사, 1991), 432.

江上綏・小林宏光, 「南禪寺秘藏詮の木版畫」(東京: 山川出版社, 1994), 182.

13) 개보장 御製秘藏詮 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는 「南禪寺秘藏詮の木版畫」(江上綏・小林宏光, 「南禪寺秘藏詮の木版畫」(東京: 山川出版社, 1994), 182. 7-1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4) 江上綏・小林宏光, 「南禪寺秘藏詮の木版畫」(東京: 山川出版社, 1994), 182.

<表 1> 開寶藏「御製秘藏詮」제13권의 판화와 동일한 初雕藏「御製秘藏詮」의 판화와의 대응표

| 開寶藏「御製秘藏詮」제13권의 판화 |          |         |         |
|--------------------|----------|---------|---------|
| 제1도                | 제2도      | 제3도     | 제4도     |
| ↓                  | ↓        | ↓       | ↓       |
| 제8권 제5도            | 제10권 제4도 | 제9권 제4도 | 제5권 제3도 |
| 初雕藏 御製秘藏詮의 판화      |          |         |         |

<表 2> “初雕藏「御製秘藏詮」제13권의 판화와 동일한 初雕藏「御製秘藏詮」제3권의 판화와의 대응표”

| 初雕藏「御製秘藏詮」제13권의 판화 |     |     |     |     |
|--------------------|-----|-----|-----|-----|
| 제1도                | 제2도 | 제3도 | 없음  | 제4도 |
| ↕                  | ↕   | ↕   |     | ↕   |
| 제1도                | 제2도 | 제3도 | 제4도 | 제5도 |
| 初雕藏「御製秘藏詮」제3권의 판화  |     |     |     |     |

<表 3> “南禪寺에 收藏되어 있는 初雕藏 『御製秘藏詮』 版畫의 重複 狀況表”

| ‘↔’는 동일하다는 의미임                                                                                                                              |                                                                                                                 |
|---------------------------------------------------------------------------------------------------------------------------------------------|-----------------------------------------------------------------------------------------------------------------|
| 제1권 제1도 ↔ 제10권 제5도 ↔ 제20권 제5도<br>제1권 제2도 ↔ 제11권 제1도<br>제1권 제3도 ↔ 제11권 제2도<br>제1권 제4도 ↔ 제11권 제6도<br>제1권 제5도 ↔ 제11권 제4도<br>제1권 제6도 ↔ 제11권 제5도 | 제6권 제1도 ↔ 제16권 제1도<br>제6권 제2도 ↔ 제16권 제2도<br>제6권 제3도 ↔ 제16권 제3도<br>제6권 제4도 ↔ 제16권 제4도<br>제6권 제5도 ↔ 제16권 제5도      |
| 제2권 제1도 ↔ 제12권 제1도<br>제2권 제2도 ↔ 제12권 제2도<br>제2권 제3도 ↔ 제12권 제3도<br>제2권 제4도 ↔ 제12권 제4도<br>제2권 제5도 ↔ 제12권 제5도                                  | 제7권 제1도 ↔<br>제7권 제2도 ↔<br>제7권 제3도 ↔ 제17권은 缺卷임<br>제7권 제4도 ↔<br>제7권 제5도 ↔                                         |
| 제3권 제1도 ↔ 제13권 제1도<br>제3권 제2도 ↔ 제13권 제2도<br>제3권 제3도 ↔ 제13권 제3도 ↔ 제11권 제3도<br>제3권 제4도 ↔ 없음<br>제3권 제5도 ↔ 제13권 제4도                             | 제8권 제1도 ↔ 제18권 제1도<br>제8권 제2도 ↔ 제18권 제2도<br>제8권 제3도 ↔ 제18권 제3도<br>제8권 제4도 ↔ 제18권 제4도<br>제8권 제5도 ↔ 제18권 제5도      |
| 제4권 제1도 ↔ 제14권 제1도<br>제4권 제2도 ↔ 제14권 제2도<br>제4권 제3도 ↔ 제14권 제3도<br>제4권 제4도 ↔ 제14권 제4도<br>제4권 제5도 ↔ 제14권 제5도                                  | 제9권 제1도 ↔ 제19권 제1도<br>제9권 제2도 ↔ 제19권 제2도<br>제9권 제3도 ↔ 제19권 제3도<br>제9권 제4도 ↔ 제19권 제4도<br>제9권 제5도 ↔ 제19권 제5도      |
| 제5권 제1도 ↔ 제15권 제1도<br>제5권 제2도 ↔ 제15권 제2도<br>제5권 제3도 ↔ 제15권 제3도<br>제5권 제4도 ↔ 제15권 제4도<br>제5권 제5도 ↔ 제15권 제5도                                  | 제10권 제1도 ↔ 제20권 제1도<br>제10권 제2도 ↔ 제20권 제2도<br>제10권 제3도 ↔ 제20권 제3도<br>제10권 제4도 ↔ 제20권 제4도<br>제10권 제5도 ↔ 제20권 제5도 |

끝으로 <表 1> · <表 2>의 내용에 해당되는 판화의 사진 대조표를 작성하면 다음의 <表 4> “開寶藏 · 初雕藏 『御製秘藏詮』 版畫의 對照表”와 같다.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1”



開寶藏 御製秘藏詮 第13卷 第1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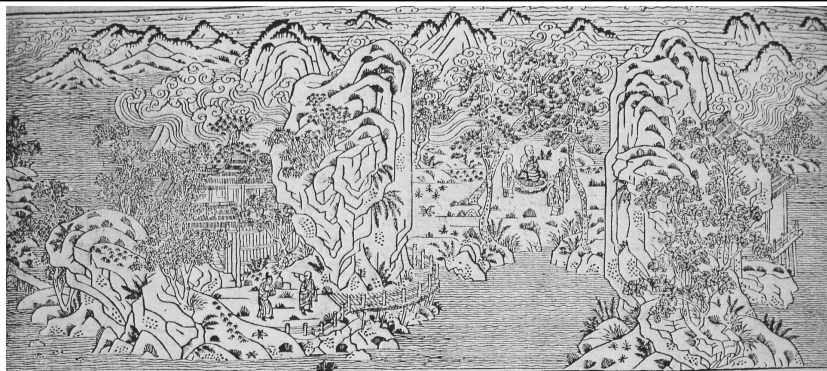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8卷 第5圖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3卷 第1圖(第13卷 第1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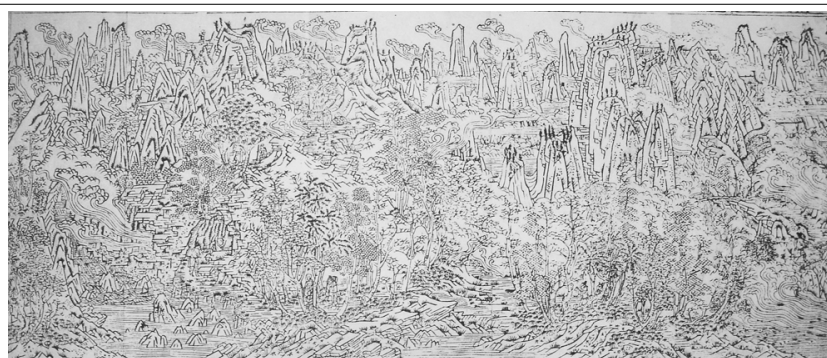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2”



開寶藏 御製秘藏詮 第13卷 第2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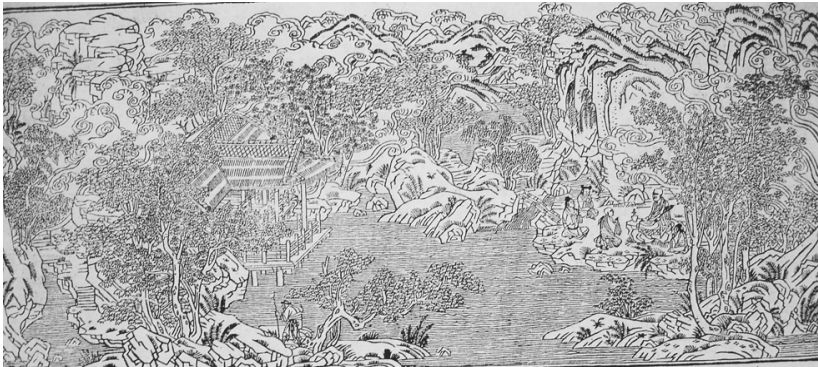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10卷 第4圖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3卷 第2圖(第13卷 第2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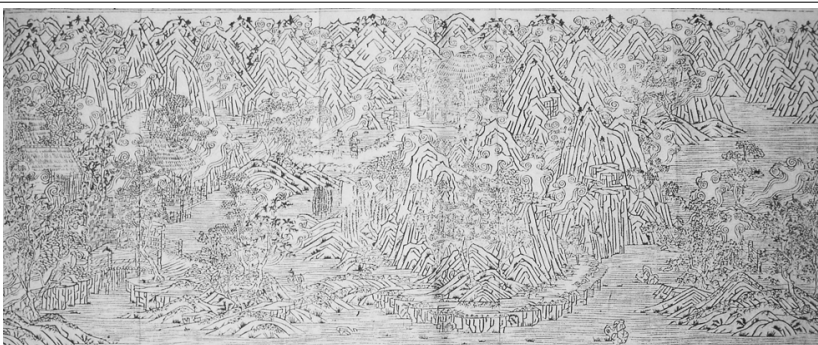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3”



開寶藏 御製秘藏詮 第13卷 第3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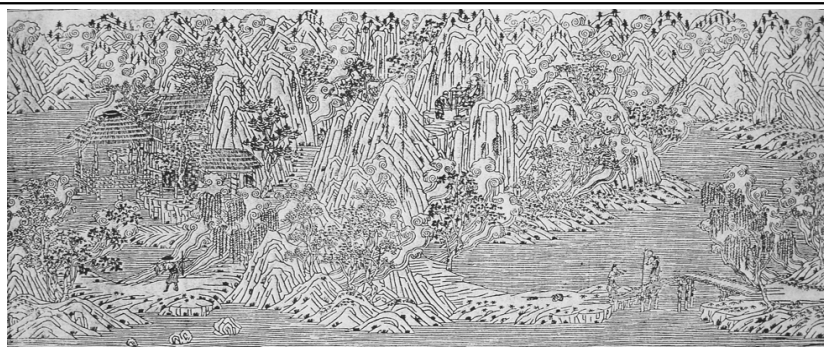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9卷 第4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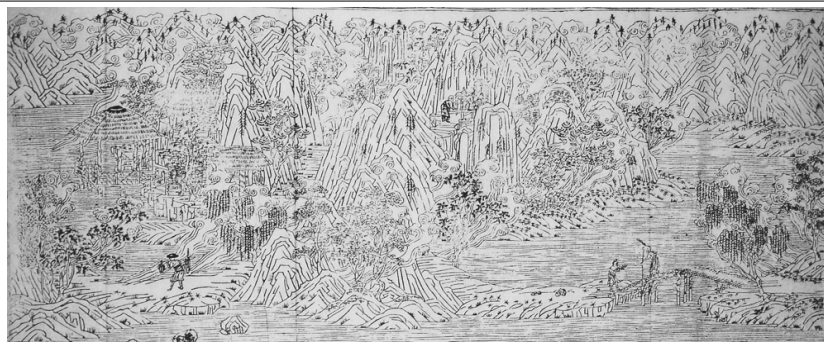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3卷 第3圖(第13卷 第3圖)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4”



開寶藏 御製秘藏詮 第13卷 第4圖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5卷 第3圖



初雕藏 御製秘藏詮 第3卷 第5圖(第13卷 第4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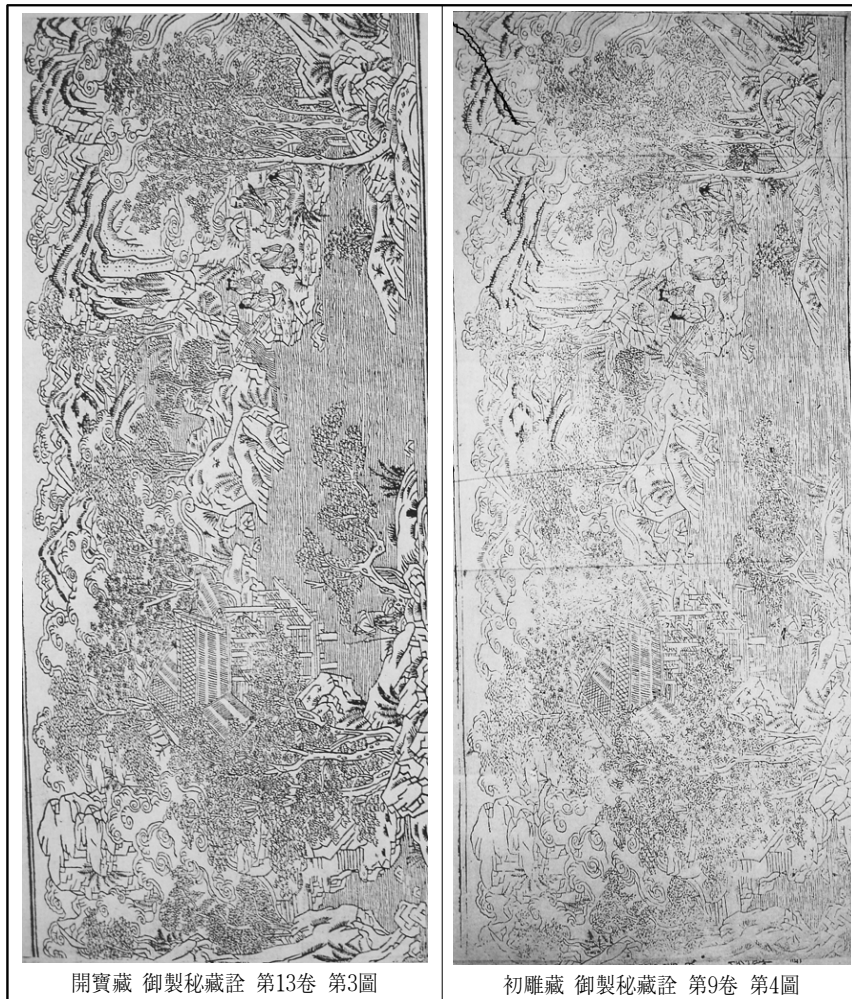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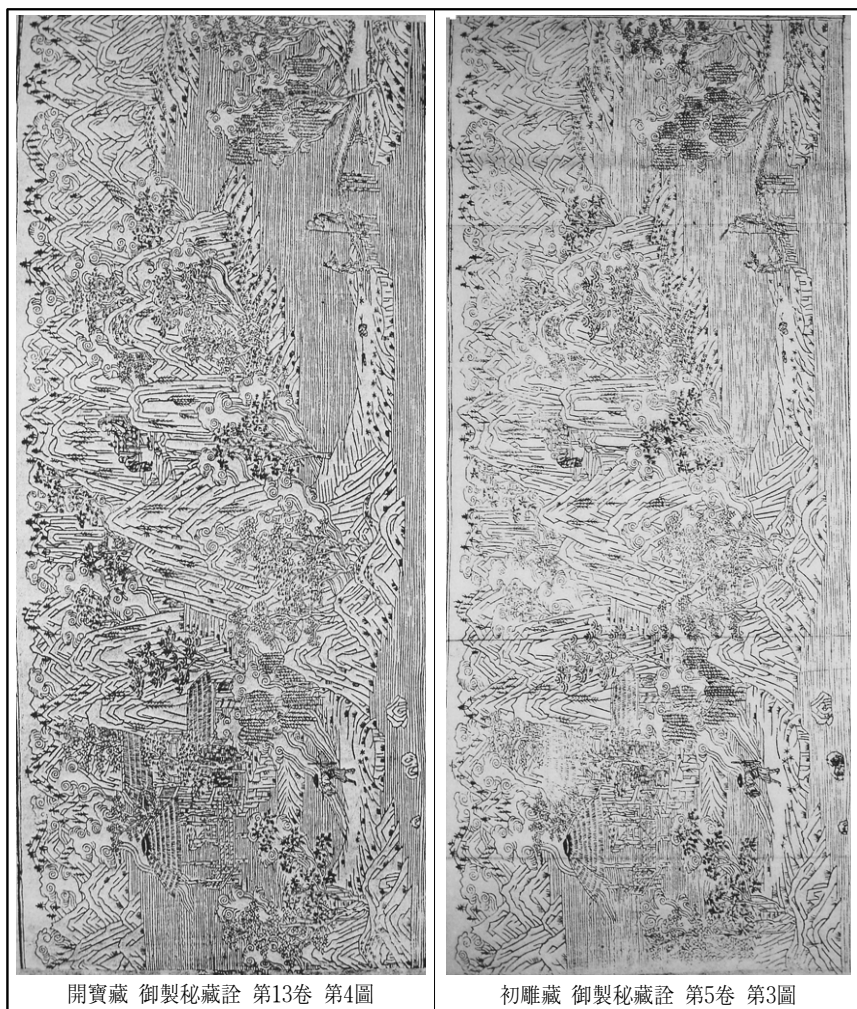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2-1”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3-1”



<表 4> “開寶藏・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對照表 4-1”



이상에서 살펴본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와 개보장「御製秘藏詮」제13권 판화와 대조 분석을 통해 필자는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의 저본과 판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이해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즉, 초조장 御製秘藏詮 판화는 개보장「御製秘藏詮」의 판화가 그대로 登梓本(즉 板下本)으로 사용되어 覆刻되었고, 다만 판화의 위치가 옮겨진 것이다.

## 5. 結 言

初雕藏「御製秘藏詮」판화에 대한 종래의 학설은 북송의 開寶藏「御製秘藏詮」판화를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성을 살리고 보태어 雕造된 것이다. 따라서 개보장「御製秘藏詮」판화와 비교해 보면 고려회화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려 초기의 산수화풍을 짐작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되어 왔다.

本稿는 이러한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의 그 저본과 판각에 대해 종래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새롭게 고찰한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초조장「御製秘藏詮」에 삽입되어 있는 판화와 개보장「御製秘藏詮」제13권에 삽입되어 있는 4장의 판화에 대해서 전체적이면서 정밀한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는 개보장「御製秘藏詮」의 판화가 그대로 登梓本으로 사용되어 覆刻된 것으로 구명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초조장「御製秘藏詮」판화에 대한 종래의 연구 결과 및 평가에 대해서 재고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 『季刊美術』 제3호, (1977).
-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1쇄, 1996 13쇄.
- 張忠植. “韓國 佛教版畫의 研究(1).” 『불교학보』 19(1982). 불교문화연구원.
- 李成美. “高麗初雕大藏經의 <御製秘藏詮>版畫 - 高麗初期 山水畫의 一研究.” 『考古美術』 169·170호(1986). 한국미술사학회.
- 智順任. “한국 산수화의 관념과 표현형식.” 『造形藝術研究』 제2호(1995). 조형예술연구소.
-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博士學位論文. 1997.
- Max Loer. 『Chinese Landscape Woodcu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江上綏・小林宏光. 『南禪寺秘藏詮の木版畫』. 東京: 山川出版社, 1994.